

현안과 과제

-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목 차

■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최근 미중 갈등 이슈	2
3. 주요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4. 시사점	10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박 용 정 연구 위원(02-2072-6204, yongjung@hri.co.kr)

산 업 연 구 실 : 민 지 원 선임연구원(02-2072-6211, jwmin@hri.co.kr)

이 진 하 선임연구원(02-2072-6269, jinha@hri.co.kr)

Executive Summary

□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갈등까지 점화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산업 동맹체(Chip4) 등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적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국내외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미중 갈등 이슈

① 첨단산업 기술경쟁(Competition for high-tech industries)

미국의 기술 우위 속 중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기술격차는 축소되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중점과학기술 항목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기술격차는 2014년 5.8년에서 2020년 3.3년까지 크게 좁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중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중국의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기술격차는 2014년 4.5년에서 2020년 1.6년까지 축소되었다. 이는 중국이 R&D 투자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수준을 빠르게 향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G2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대립(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WTO 가입('01) 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미중 분쟁 본격화('18) 이후에도 중국의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21년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고급 노광장비 수출 원천 봉쇄, '22년 구형 장비 수출금지 요청 등 중국의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은 대만산 원산지 표기 규제 강화 등 경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대만이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국가로 반도체 산업공급망의 핵심 허브인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③ 무역적자 확대와 우방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Friend-shoring)

미국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대규모 관세 부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4,173억 달러에서 2021년 3,52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동기간 8,787억 달러에서 10,903억 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

의 우회 수출로 고율 관세가 무력화된 결과로 파악된다. 2020년 상품 수출입 교역액 상위국은 중국(5,578억\$), 멕시코(5,405억\$), 캐나다(5,325억\$)에서 2021년에는 캐나다(6,735억\$), 멕시코(6,675억\$), 중국(6,579억\$)으로 변화하는 등 우방국과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 주요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를 활용하여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무역통제의 경제제재가 부과되었을 경우 OECD 38개국, 유럽(EU28) 및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수출 부가가치 감소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국 파급영향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수출 통제의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 전략산업(전기전자, 통신장비제조)은 한국과 대만, 전산업은 미국과 한국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나리오① 분석 결과 주요국 중 한국, 대만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각각 601억 달러, 333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 250억 달러, 미국 12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의 부가가치 감소는 명목 GDP(2018) 6,092억 달러의 5.5% 수준이며, 한국은 명목 GDP(2018) 1.7조 달러의 3.5%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일본은 명목 GDP(2018) 5조 달러의 0.5%, 미국은 명목 GDP(2018) 20.5조 달러의 0.1% 감소로 평가된다. OECD 38개국과 유럽은 각각 명목 GDP의 0.2%, 0.1% 수준이다.

< 시나리오①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 >

구분	부가가치 감소(억 달러)	명목 GDP 대비 비중(%)
대만	333	5.5
한국	601	3.5
일본	250	0.5
미국	129	0.1
OECD 38개국	1,028	0.2
유럽(EU28)	166	0.1

자료 : OECD TIVA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주 : 명목 GDP 대비 비중 내림치순 정렬.

시나리오② 분석 결과 주요국 중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미국, 한국이 대중국으로의 전산업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국 중 미국과 한국은 부가가치 감소 규모 면에서 각각 1,474억 달러, 1,144억 달러로 가장 큰 수준이다. 다음으로 일본과 대만이 각각 1,098억 달러, 578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OECD 38개국과 유럽이 각각 1,676억 달러, 5,835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준이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이다. 대만의 부가가치 감소는 분석대상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9.5%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역시 부가가치 감소가 명목 GDP 대비 6.6% 수준으로 분석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 시나리오②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 >

구분	부가가치 감소(억 달러)	명목 GDP 대비 비중(%)
대만	578	9.5
한국	1,144	6.6
일본	1,098	2.2
미국	1,474	0.7
유럽(EU28)	1,676	1.0
OECD 38개국	5,835	0.7

자료 : OECD TIVA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주 : 명목 GDP 대비 비중 내림치순 정렬.

② 세부 산업별 파급영향

세부 산업별로는 미국과 유럽은 운송장비, 한국, 일본,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운송장비 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 중단에 따라 부가가치 감소가 146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화학 및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순이다. 유럽 역시 운송장비의 부가가치 감소가 234억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유럽의 경우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가 599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등 전자 부품·기기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가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큰 산업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기계와 장비, 소재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반영된 결과이다.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 특히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컴퓨터, 전자부품, 광학기기제품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성장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갈등까지 점화되는 양상
 - 미국은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체(IPEF), 반도체 산업 동맹체(Chip4) 등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미중 간 갈등은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양상
 - 최근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산업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고자 반도체 산업진흥법을 마련하고 중국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적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미국은 대만 정책법(Taiwan Policy Act, TPA) 추진을 통해 대만을 중국과 별도의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 등으로 미중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되는 모습임
- 본 보고서는 최근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국내외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미중 갈등 이슈 >

구분	주요 내용
경제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등을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의도로 구성된 다자경제협력체(13개국)
산업	- 칩4(Chip4) :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개국 간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반도체 동맹 - 반도체와 과학법 발효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美 반도체와 과학법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반도체 산업지원(527억\$), 과학연구지원(1,700억\$) 등 총 2,800억\$ 규모
반도체 사업 지원	- 설비투자 등 보조금 지원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등 R&D 보조금 지원 - 반도체 설비건설, 장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 공제 - 지원금 수혜기업에 대한 중국 등 비우호국 해외투자규제

자료 : THE WHITE HOUSE, US Department of Commerce 참고.

2. 최근 미중 갈등 이슈

① 첨단산업 기술경쟁(Competition for high-tech industries)

○ 미국의 기술 우위 속 중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지속되면서 양국 간 기술격차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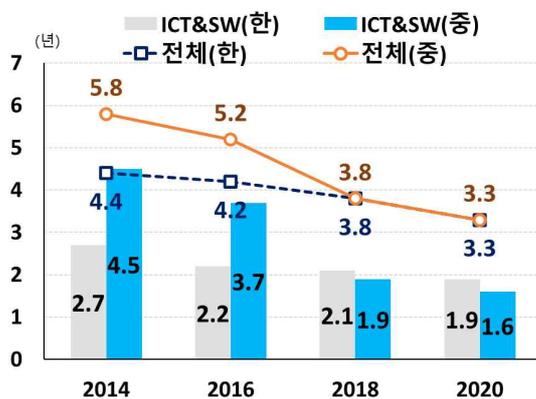
- 전자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축소

- 한국의 중점과학기술 항목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체 기술격차는 2014년 5.8년에서 2020년 3.3년까지 크게 좁혀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중국의 전자정보통신 부문의 기술격차는 2014년 4.5년에서 2020년 1.6년까지 축소됨

- 이는 R&D 투자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술 수준을 빠르게 향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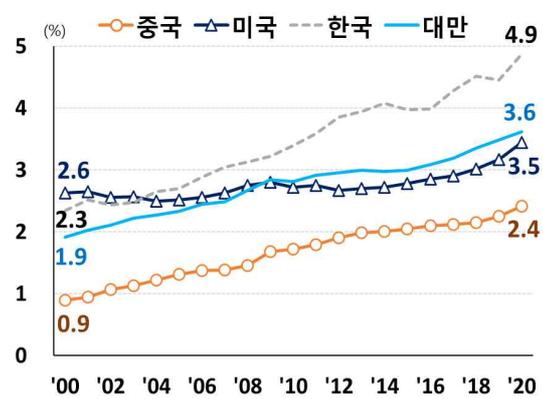
- R&D 지출 규모는 PPP 달러 기준 미국이 2000년 2,695억 달러에서 2020년 7,209억 달러까지 2.7배 증가한 반면, 중국이 동기간 329억 달러에서 5,828억 달러로 17.7배 증가함
- 미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00년 대비 2020년 0.8%p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동기간 1.5%p 이상 확대됨

< 세계 최고 기술국(美) 대비 한국 및 중국 기술격차 >



자료 : KISTEP¹⁾.

< 국가별 GDP 대비 R&D 지출 비중 >



자료 : OECD, IMF.

1) 2014년, 2016년 평가와 2018년, 2020년 평가는 중점과학기술 범위의 차이가 일부 존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자정보통신 평가 항목은 ICT·SW로 변화.

② G2 패권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대립(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허브인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

-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핵심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
 - WTO 가입('01) 후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미중 분쟁 본격화('18) 이후에도 중국의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1년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고급 노광장비 수출 원천 봉쇄, '22년 구형 장비 수출금지 요청 등 중국의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대만산 원산지 표기 규제 강화 등 경제 조치를 단행함
- 대만은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국가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핵심 허브
 - 대만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해양 연결지점에 위치해, 중국 입장에서 대만해협은 해상 운송의 요충지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만은 인도-태평양전략에 중요한 지역임
 -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시장에서 대만의 시장 점유율은 약 64%(TrendForce)로 주요 반도체 공급처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글로벌 GDP 대비 미중 GDP 비중 >



자료 : IMF.

- 주1) 명목 GDP 기준.
- 주2) 2021년 이후 추정치.

<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

기업명	시장 점유율 (%)	매출액 (백만달러)	국가
TSMC	53.6	17,529	대만
Samsung Electronics	16.3	5,328	한국
UMC	6.9	2,264	대만
Global foundries	5.9	1,940	미국
SMIC	5.6	1,842	중국
Hua Hong Semi	3.2	1,044	중국
Powerchip	2.0	665	대만
VIS	1.5	482	대만
Nexchip	1.4	443	중국
TowerJazz	1.3	421	이스라엘

자료 : TrendForce.

주 : 2022년 1분기 기준.

③ 무역적자 확대와 우방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Friend-shoring)

○ 미국의 대규모 대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우방국과의 교역액 증가

- 미국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
 - 2018년 7월 상대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미중 분쟁이 격화됨
 - 미국은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등을 근거로 상향된 관세를 부과해 중국 무역제재를 강화함
 - 2019년 10월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보류 등 미중의 1차 합의로 관세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기존 높은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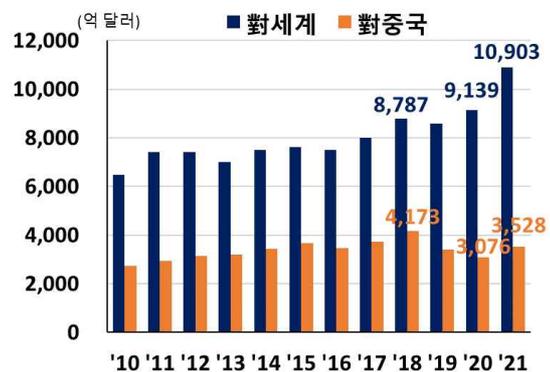
-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확대되고 우방국과의 교역은 증가하는 양상
 -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대규모 관세 부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4,173억 달러에서 2021년 3,52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동기간 8,787억 달러에서 10,903억 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함
 - 이는 중국이 동남아, 멕시코 등으로의 우회 수출로 고율 관세를 무력화한 결과로 파악됨
 - 2020년 상품 수출입 교역액 상위국은 중국(5,578억\$), 멕시코(5,405억\$), 캐나다(5,325억\$), 일본(1,846억\$)에서 2021년에는 캐나다(6,735억\$), 멕시코(6,675억\$), 중국(6,579억\$), 일본(2,111억\$)으로 변화함

< 미국의 對중 평균 관세율 추이 >



자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미국 경제분석국(BEA).
주 : 서비스 제외.

3. 주요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 **과급영향의 분석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에 수출 통제의 경제제재가 부과되었을 경우 OECD 38개국 및 유럽(EU28),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수출 부가가치 감소를 추정²⁾**
 - 2021년 공표한 OECD의 국제산업연관표(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를 활용하여 국내총생산(GDP; 자국 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합)에 기여하는 순수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분석
 - 일반적으로 수출액 중 해외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함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6개국 대상의 국제 산업연관표가 공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신 시계열인 2018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 분석의 가정은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수출 부가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중국과 대만의 무력 수위 확대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수출 제재 효과만을 고려하였으며, 주요국 수출 부가가치 감소와 GDP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다만,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은 중국으로의 전면 수출 중지의 70%, OECD 38개국과 유럽(EU28)은 해당국들의 수출 통제 동참 여부를 고려하여 50% 수준을 가정 후 부가가치 감소를 분석함
 - ※ 수출 중지 수준의 범위는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따른 수출, 수입 및 교역량 감소를 분석하여 시나리오에 적용함³⁾

2) 본 연구의 분석은 니혼게이자신문(The Nikkei; 日本經濟新聞)의 『世界經濟、台湾有事ならコロナ超す打撃金融も混乱, 2022.8.2.』의 내용을 확장 연구한 결과임. 관련 기사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무역국(중국)에 전면 수출 중지의 경제제재가 부과되었을 경우 일본이 명목 GDP의 3.7%, 유럽 2.1%, 미국 1.3%의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함.

3)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따라 미국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액은 2~6월 간 누계 전년동기대비 -71%, 수입액은 -25%, 수출입 총교역액은 -33%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US Census Bureau).

- 시나리오① 전략산업(전기전자, 통신장비제조) 부문의 수출 통제, 시나리오② 전산업의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수출 부가가치 감소분을 분석
 - 실제로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기반으로 화웨이,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해 전기전자, 통신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행한 바 있어 본 연구의 시나리오①에서는 동 품목을 전략산업으로 지칭함
 - 시나리오②는 전산업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가 이뤄졌을 경우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분을 추산함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외 파급경로 >



2) 분석 결과

① 주요국 파급영향

-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수출 통제가 가해졌을 경우 전략산업은 한국과 대만, 전산업은 미국과 한국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① 분석 결과 주요국 중 한국, 대만이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한국과 대만은 부가가치 감소 규모가 각각 601억 달러, 333억 달러 수준으로 일본 250억 달러, 미국 129억 달러를 크게 상회함
 - 지역별로는 OECD 38개국이 1,028억 달러, 유럽 166억 달러로 분석됨

- 특히,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
 - 대만의 부가가치 감소는 명목 GDP(2018) 6,092억 달러의 5.5% 수준이며, 한국은 명목 GDP(2018) 1.7조 달러의 3.5%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명목 GDP(2018) 5조 달러의 0.5%, 미국은 명목 GDP(2018) 20.5조 달러의 0.1% 감소로 추정됨
 - OECD 38개국과 유럽은 각각 명목 GDP의 0.2%, 0.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①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 >

구분	부가가치 감소(억 달러)	명목 GDP 대비 비중(%)
대만	333	5.5
한국	601	3.5
일본	250	0.5
미국	129	0.1
OECD 38개국	1,028	0.2
유럽(EU28)	166	0.1

자료 : OECD TIVA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주 : 명목 GDP 대비 비중 내림차순 정렬.

- 시나리오② 분석 결과 주요국 중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미국, 한국이 대중국으로의 전산업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분석대상국 중 미국과 한국은 부가가치 감소 규모 면에서 각각 1,474억 달러, 1,144억 달러로 가장 큼
 - 일본과 대만이 각각 1,098억 달러, 578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OECD 38개국과 유럽이 각각 1,676억 달러, 5,835억 달러로 추정됨
- 다만, 부가가치 감소의 GDP 대비 비중은 대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준이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미국 순
 - 대만의 부가가치 감소는 분석대상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나 명목 GDP 대비 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한국 역시 부가가치 감소가 명목 GDP 대비 6.6% 수준으로 분석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②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산업 부가가치 감소 영향 >

구분	부가가치 감소(억 달러)	명목 GDP 대비 비중(%)
대만	578	9.5
한국	1,144	6.6
일본	1,098	2.2
미국	1,474	0.7
유럽(EU28)	1,676	1.0
OECD 38개국	5,835	0.7

자료 : OECD TIVA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주 : 명목 GDP 대비 비중 내림차순 정렬.

② 세부 산업별 파급영향

○ 산업별로는 미국과 유럽은 운송장비, 한국, 일본,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중 산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 1차 금속, 전자, 기계, 운송장비를 국제산업분류(ISIC Rev.4) 대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별 수출 부가가치 감소 분석
- 미국의 운송장비 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 중단에 따라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화학 및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순
 - 유럽 역시 운송장비의 부가가치 감소가 234억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유럽의 경우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한국은 전기전자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등 전자 부품·기기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
 - 일본은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가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큰 산업군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통적으로 기계와 장비, 소재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반영된 결과임

- 대만은 전기전자 부문 특히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컴퓨터, 전자부품, 광학기체품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가장 크며 이는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성장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감소 영향 >

(단위 : 억 달러, %)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대만	OECD 38개국	유럽 (EU28)
화학 및 비금속 광물	137 (0.1)	144 (0.3)	169 (1.0)	63 (1.0)	626 (0.1)	187 (0.1)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59 (0.03)	72 (0.1)	44 (0.3)	26 (0.4)	432 (0.1)	96 (0.1)
전기전자	122 (0.1)	243 (0.5)	599 (3.5)	331 (5.4)	988 (0.2)	146 (0.1)
컴퓨터, 전자부품, 광학기체품	107	173	568	319	823	87
전기장비	15	70	31	12	166	59
기계 및 장비	51 (0.02)	158 (0.3)	71 (0.4)	24 (0.4)	406 (0.1)	153 (0.1)
운송장비	146 (0.1)	105 (0.2)	24 (0.1)	3 (0.05)	497 (0.1)	234 (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43	92	17	2	310	161
기타 운송장비	103	13	7	1	188	73

자료 : OECD TIVA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주1) 괄호는 명목 GDP 대비 비중.

2) 빨간색 음영은 국가 및 지역별 부가가치 감소 영향이 큰 상위 2개 산업.

4. 시사점

-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첫째, 미중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할 필요
-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내 설계 및 생산의 밸류체인 구축 노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필요

둘째,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고기술 및 고부가 제품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을 유지하고,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할 필요

셋째,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 등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 **HRI**

박 용 정 연구 위원 (2072-6204, yongjung@hri.co.kr)

민 지 원 선임 연구 원 (2072-6211, jwmin@hri.co.kr)

이 진 하 선임 연구 원 (2072-6269, jinha@hri.co.kr)